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十二面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書堂改良案
義務敎育이 急務

一

總督府에서는 明年度豫算에 二十八萬圓을 計上하야 이로써 書堂을 改良하야 普通學校의 入學難을 緩和하는 同時에 文盲退治에 一助가되게하리라한다 書堂에는 第三種講導를設하고 一書堂에는年額五百圓의 補助를 준다하니 二十八萬圓으로써는 約五百六十個의 書堂이 改良될것으로 文盲退治의 一助는 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旣往 初等敎育의普及을 期한다 할진대 좀더一步를 나아가私立學校、講習所를 保護、獎勵하고、學齡兒童의 義務敎育을 實施하는 意思는 업는가。

二

方今各地에잇는 講習所、夜學가튼것에對하야 當局에서는往往 認可가 업다거나、講師가 不穩하다는 理由로써 閉鎖하는 例가 非一非再인바數年以來로 이 悲運을만나는 講習所가 接踵하는形便이다 當局이 萬一 初等敎育의 普及 乃至 文盲退治의 誠意가잇다면 當然히 認可를 容易하게하야 認可講習所를 增加시킬것이오 所謂不穩敎師만을 認可치안어 講習所의 閉鎖를防止할것이아니랴 講習所의閉鎖는 書堂改良案의精神과背馳된다

三

그리고 義務敎育에 對해서는 反對議論이 여러가지잇으나 主要한 點은 朝鮮學父兄의 經濟力의 缺乏에잇다。그러나 萬一 當局이 公平한眼目을 가지고 日本서 義務敎育을 實施한 當時의 明治二十年頃의 日本人의 經濟力과 現今의朝鮮과를對照할진대 그다지 差異잇는것이 아니다、實易 財政 其他等을 日本의當時의 그것과 比較해 볼때그間의貨幣價値의 騰貴를 眼中에 너허라도 決코 朝鮮에 遜色잇는것이 아니다。問題는 朝鮮人도 日本人과가티 今後 富가 增進하야 義務敎育이 完成한 二十年頃後에 日本人의 經濟力과 相等한 處地에 이를가 못이를가하는데잇스니、이點에 對해서朝鮮人이 果然 그런希望이업고、따라서 義務敎育도 實施할수업다면 그責任은 朝鮮人에게 잇는것이아니라 當局者에게 잇는것이 아니랴。

四

吾人의 見解로써하면 義務敎育을 實施함에는 一、二年에 完成하는것이 아니므로今明年間에 着手하야 엇더한期間에 完成하도록하되 그財政은 吾人의 恒常主張하는官吏加俸撤廢、土地改良事業、私鐵其他에의補助中止、警察費의削減、鄕校財産의 學校費에의充當、其他 冗費의 節約으로써하고、萬一 이것으로써도 不足이될때에는 大藏當局으로부터 國庫의 補助를바들지며、明年度부터 實施할個人所得稅相續稅等의 徵收도 充當할것이다。그리고 民力의 充實問題는 當局의責任지야할바여니와、方今 農相과 陸相이 主張하는 農村改革案等을 朝鮮에도 適用하면그一方針이 될것이아닌가。要컨대 問題는 當局의 誠意如何에잇나니 當局은 一面一校主義나 書堂改良案에 滿足치말고 義務敎育을 實施하야 徹底히 解決할것이다

瓦解에直面한現內閣

藏相態度不變이면 閣議前에總辭職?

最後的說服을試코저 首相又復藏相을訪問

齋藤首相

高橋藏相

【電通東京電話】齋藤首相은 一日午後三時十分 高橋藏相을 官邸에 訪問하고 三度藏相과 會見하야 困境에빠진 豫算問題의打開에關하야 藏相의考慮를 促한배잇서스나 藏相은 果然如何한 態度에出할가 그러나 齋藤首相으로서는 最後의 努力으로써 高橋藏相을說服할 第二次査定案以上에 更히若干의要求를容認식히려는것이다 그러므로 此首相의藏相에對한 訪問結果야말로目下의紛糾에對하야 最後的 裁斷을 與하는것으로 此에依하야 高橋藏相의心境이動하면玆에 一縷의光明이 보일것인대 萬若藏相이依然 心境에變化가업다면 二日의 閣議開催를 기다리지 못하고內閣은總辭職의 길을찻게 될것으로본다

決心은何等不變 高橋藏相談

【電通東京電話】今朝總理와會見한것은 豫算閣議에 對한協議인바今前의閣議에서 大角海相으로부터 豫算閣議는明日로해달라는 閣議後荒木陸相과도 會見하얏는데 後藤農相은再昨夜맛난때에 農林豫算에對하야 別로具體的의말은하지안엇다 그러나 內政會議의 問題는別로 곳實行치안으면안된다는것도아니다 自己의決心은 現在도何等變함이업다 特히將來의 財政을생각하면 더욱그러타다公債의增發과 인프레에加鞭을하는것은 空然히物價를騰貴케하야中產階級은困難에陷하야國力이 衰積해갈뿐이다 그런데 그리되면大增稅라든지 國家統制議論도이러나게된다 그리되면中產階級은 다無產階級으로 떠러저바린다 이것을支配하는勢力이이러나면 伊太利 獨逸의例를 踏하지안는다고도할수업다 由來日本의政治의 要諦는建國以來無產者를 有產者로하는것이原則임으로 이心理로써잇는以上吾輩로서는 豫算에膨脹은 絕對로取치안는바다

意見이틀려좀처럼 解決이困難하야 獨히藏相뿐아니라藏相과親한各閣僚도다가티이以上은絕對로못내겟다고하고잇다이가다不一致되는것도 要컨대五相會議와內政會議를中途에停止하고豫算에當한外닭이다

現內閣支持拒否?

非常時局收拾力업다고 陸軍態度急轉向

【電通東京電話】豫算編成은 海軍、大藏、農林三省各各強硬態度를갓고政府首腦部의期待에反하야하야紛糾狀態를繼續하야政局은混迷狀態를呈함에至하엿스나 目下의狀態로如斯한것은全然現內閣에根本國策의確立이업는外닭이라하야過般의五相會議를有耶無耶에終了하엿슴에對하야及其他不滿을强하게하엿다그리고目下의陸軍의態度는如何間豫算編成을終了식히고 近近續開될內政會議에 一縷의希望을囑하야 重大時局收拾의方途를講究하려는 部는 最近이미過般의五相會議의經過에徵하야 現內閣에時局收拾의誠意업슴을알어 이라果然非常時局을打開할能力이잇느냐업느냐하는疑問을가지게되엿슴으로 從來繼續하여오던現內閣支持의態度에서急轉向을示하려는形勢를示하야旣히그鋒鋩을示하엿는데 此는極히注目되는바이다

『豫算을써나서 政治問題化』 荒木陸相談

【電通東京電話】一日閣議終了後荒木陸相은다음과 가티말하엿다

여러가지 이약이를하고意見을聞하엿스나 圓滿落着이될런지못될런지는依然不明하다 問題는豫算을떠나서 政治問題로드러갓다고보아서關係업다 海軍 農林兩省豫算이依然 中心이되엿스나 大藏大臣은 이것을 이以上一分도못내겟다고말하고 海軍省、農林省共히이것으로는 아모래도不足하다고한다 特히農林省豫算에對하야는藏相과農相間에 金額이아니요 政策에根本的

高橋藏相辭表提出

豫算再査定問題로 말미암아

【東京一日發電通】高橋藏相은 豫算再査定問題로 말미암아 一日午後齋藤首相에게 辭表를提出하엿다

蘇聯內布敎問題로 法王廳、折衝提議?

리트비노프氏羅馬來訪機會로 信敎自由獲得解決乎

【聯合로마三十日發】로마를訪問한다고 報하는 리트비노프氏의 來訪을 機會로 法王廳에서는 쏘베트聯邦內에서의 信敎의 自由를 獲得하기위하야 折衝을 開始할것으로 觀測하게되엿다 前記 法王廳과 쏘베트聯邦과의 關係는 極히險惡한 狀態에잇는바 쏘베트聯邦의 外部에 對한態度가매우 和協的으로 되얏슴으로法王廳과의 關係改善도 이것을機會로 매우成熟할것으로觀測한다

部에서는左와如히말하엿다 效果的軍縮及歐羅巴 列國關係의改善에關한 具體的提案이라고하면 如何한것에對하여서나리트비노프氏는 好意的態度로써對할것으로틀림업슬것이다

福建政府의要人 浙江討伐을揚言

第四十九師等續續北上

【聯合福州一日發】第十九路軍에屬하는 第四十九師及 第七十八師는 福建西南方面으로부터福州를通過하야 繼續北上하야 浙江省에 向하는中이다 新政府要人及各將領은 連日會議를 거듭하는바 政府의要人은 新政府는 浙江討伐을近近斷行한다고 揚言한다 그리고 廣東方面에잇서서도 陳濟棠氏는 何等積極的 軍事行動을取할意思가업고 新政府도또이것을조와兵을 動하라는模樣은目下는업다

福建政府不援助 國府各國에要求

【聯合南京三十日發】南京政府 外交代辯者는三十日夕刻中國新聞記者에게對하야 福建政權에對하야如左히말하얏다 中國政府는 各國政府에게對하야各國이 福建新政府에게如何한形式으로서라도 援助를與하지안토록要求하얏다

◇武士道? 後藤「試合에敗한 以上自決하는것이에잇!」齋藤「아니여보게 그만것서지야잇는가」

一事一言

長白山人

크리스마스 씰

結核은 낫는 病이라고 今日의 醫學은 말한다。事實上 今日의 醫學의 힘으로 結核은 治療될수잇는것이 事實이다。그러나 그러타고 結核이 무섭지아니한것이아니다。靑年의 生命과 活氣와 幸福을 앗는 怪物은 如前히 結核이다。그런데 이 結核은 治療할수잇슬뿐더러 또한 一國土內에서 撲滅할수잇는것도 事實이라한다。英國의 結核患者는 年年히 減少하여간다고 한다。그런데 朝鮮에는 結核患者가 年年히 增加한다고한다。

結核撲滅의 길은 (一) 保健、(二) 衛生、(三) 隔離와 治療다。(一)은 各個人과 各家庭이 할것이오 (二)와(三)은 國家와 社會와 個人의 三合協力으로 할것이다。朝鮮에 結核이 逐年增加하는것은 이두가지 힘―個人과 카뮤니티의 힘이 업는탓이다。

海州救世病院에서 昨年에처음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一枚二錢의票를 發賣하야 結核撲滅資金 約二千圓을 어덧다는데 今年에 또 第二回로 이것을 發賣하기로하엿다고한다。그効果가 갑작기 크기를 바랄수업지마는 一般民衆에게 結核에 對한 觀念을 넛는것만으로도 精神的 効果가 클것을 밋는다 다토아 一매자리 씰을 사서 쓰는것으로 義務를 삼고 자랑으로 삼을것이라고 밋는다 民族社會의公益에 關心한다는것만의 文明人의 자랑이 아닌가

輕巡洋艦鈴谷起工式 來十二月十一日에

【電通橫須賀電話】橫須賀海軍工廠에서去十六日日本海軍으로列國에誇張할만한新鋭潛水艦大鯨을進水케하얏는바 今次는 輕巡洋艦 鈴谷(七五〇〇噸)을建造하기로되어 準備中이든바 來十二月十一日 午前九時起工式을行하기로되엿다

藏相心境無變化 三土藏相談

【電通東京電話】三土鐵相은 一日의閣議散會後午後二時官邸에서左와如히말하엿다

閣議散會後남어잇서協議를進行식혀보앗스나高橋藏相은依然心境에變化업시 인제이以上讓步할수는업다고한다 海軍側도依然 强硬한態度로 이程度로는 全혀妥協할可望이업게되엿다 오직山本內相等이 무삼方法으로 此嶮路局의危機를 招來안토록 切望함으로 自己도무슨方法으로든折衷하려고생각한다 如何튼오늘하로밤자고 明日의閣議까지생각하야 조흔協調點을發見하는數밧게업다

『會見內容은 말할수다업』 大角海相談

【聯合東京電話】齋藤首相과 會見後 大角海相은如左히말하엿다

今日首相과의會見內容은 內容經過가아직 中途에屬하니 外에 一切로말할수업다 省에 도라가서 關係者와相議하야 가지고 [illegible] 云云

福建廣東兩派 關係全然斷絕

【聯合福州三十日發】福建派와廣東派의關係는 決定的으로斷絕하야 廣東에든十九路軍의駐粤辦事處는 閉鎖되엿다 一方十九路軍은 多數宣傳員을派하야 地方農民間에宣傳工作을徹底키위하야繼續地方에向하게하고또各學校에서는 三民主義敎授를禁止하얏다그리고 十二月一日을期하야全囚人의大赦를하고開放을決行하기로되엿다

福建新政府는 反蔣反國民黨

陳外交部長聲明

【聯合福州三十日發】今次의福建獨立政府確立에는 共產黨勢力이 主要因子를形成하야共產軍과連絡密接한듯이 一般에傳하고잇는데 人民革命政府의外交部長陳友仁氏는 公式으로右報道를否認하고 新政府의目指하는바는國民黨及 蔣介石反對에잇는旨를聲明하엿다

福建의開港地 封鎖키로決定

【電通南京三十日發】國民政府는 各軍艦을派遣하야 福建省의各開港의 封鎖를決意하엿는데 右에對하야 海軍部長陳紹寬은 三十日左와如히말하엿다

福建의 開港封鎖는 既定事實로 海軍獨自의立場에서漸次封鎖에着手하엿는데外國船舶의出入禁止는 兩三日中에列國에提示한後實施할豫定이다

總指揮等任命 福建討伐爲해

【電通南京卅日發】蔣介石은 近近浙江方面에 臨時編成을하고左와如히任命하기로되엿다

陸軍前敵總指揮 趙觀濤
海軍司令 陳季良
空軍總指揮 毛光翔

또趙觀濤는既히福建의北方省境으로 約十哩의地點에到着하야陳、毛도兩三日中에上海及杭州를出務하기로되엿다

印度側回答成案

一日은日印本會議開催 雙方、暴風前沈默固守

【聯合델리二十九日發】印度代表部는二十七 八兩日에亙하야官民協議會의經過에 鑑하야 二十九日午後更히 一時間余에亙하야代表部會議를열고 對策協議를行한結果大體方針의 決定을보듯한데 殘餘手續은다만官民協議會의經過를 英本國에報告한데對하야 英國側의回答을 기다릴뿐으로되엿다 아뭏든에 日印會商本會議는來十二月一日에行할것으로期待된다

【聯合뉴델리三十日發】日印會商은 印度側의 回答을待할뿐으로되엿는바 三十日印度側은閣議도 代表會議도 開치안코 英國으로부터의訓令을待하는模樣이나 一日도會議는開催

張學良氏年末에歸國

東北軍各將領에打電

【電通北平卅日發】歐洲에잇는張學良氏는 今明東北軍各將領에게 今年末에歸國한다는電報를보내엿다 이보다먼저萬福麟은蔣介石의招電에依하야王樹常以下二十餘名을率하고昨日南京經由로南昌에 向하엿는데 蔣介石과學良歸國에對한善後措置와 東北軍의改編問題張學良의新職名에關하야協議할豫定이다또萬福麟은出發前于學忠과도萬般의協議를行하엿다

出淵大使桑港着

三十日出帆歸朝

【聯合산프란시스코廿九日發】歸朝의命令을受한出淵駐米大使는夫人令息을同伴하고廿九日산프란시스코에着하고同總領事富井周氏와在留日本人의出迎을受하고 로쓰안젤쓰領事佐波敏人、포틀란드 領事中村豊一氏외 出迎을受하고 人事가畢한後大使는米國記者로부터米國의對蘇承認에對한 感想如何의質問을바닷스나 一切批評을避하엿다。그리고一行은三十日當地出帆의郵船淺間丸으로橫濱에向할豫定이다

相互理解한다면 建艦에不安別無

英國서米大使가演說

【聯合倫敦三十日發】駐英米國大使빙감氏는 三十日 론돈의 米國協會主催의 感謝祭晚餐會 席上에서 米國의海軍建艦을確認하야 如左히述하얏다

萬一 英米兩國民이 自身의立場을諒解하고 互相理解한다면 米國의建艦計劃에關連하야 何等不安도起할理由가업나니 現在의 不安除去에世界에對하야 가장關心할만한最大의일은 二大民衆支持國인 英米兩國이 如何한徹底乃至 野心도抱하지안코오즉 平和만을希望하는것이다

新春文藝懸賞募集

應募期限十二月二十五日

論文

文藝評論(題隨意)

評壇의沈滯와無權威는大衆의 銳敏한 批判의對象이되고잇는것은 가리우지못할 事實이되어잇습니다。朝鮮新文學의 指導가되며 原動力이될만한 大文字의 出現은待望된지 오랩니다。이제우리는 滿天下에 조흔論客을推薦하는 意味에서 題目을걸지안코 文藝評論을모으기로하엿습니다。作品評이거나、硏究論文이거나、文明批評的論文이거나 作家評이거나、其他무엇이거나 文藝에 關聯된 卓論을보내주십시오

賞金…『甲』一人五拾圓 『乙』二人 貳拾圓

『規定』二十四字十行原稿紙로 一百枚以內

創作

短篇小說

『規定』二十四字十行原稿紙로 五十枚로하되 剽竊品은當選發表가잇슨後라도 理由를擧하야紙上으로取消함

賞金…甲一人五十圓 乙一人 貳拾圓

戲曲

規定과賞品은短篇小說과 同一함

詩歌

A新詩 B民謠 C時調

賞金…各二人「合六人」一人各五圓

流行歌

或低劣한레코-드流行歌가一般家庭에惡影響을 주고잇는것이 만흠으로 이것을一掃하고 새로운 流行歌를레코-드 팬에게 選物로드리고자 當選作은 各著名한 레코-드會社에付託하야 吹入코자함

『規定』一人二篇式十二篇(一篇三節) 賞金은詩歌와同一함

兒童作品

童話 『規定』二十四字十行原稿紙로 二十枚以內 但剽竊品은無效

賞金…二人各五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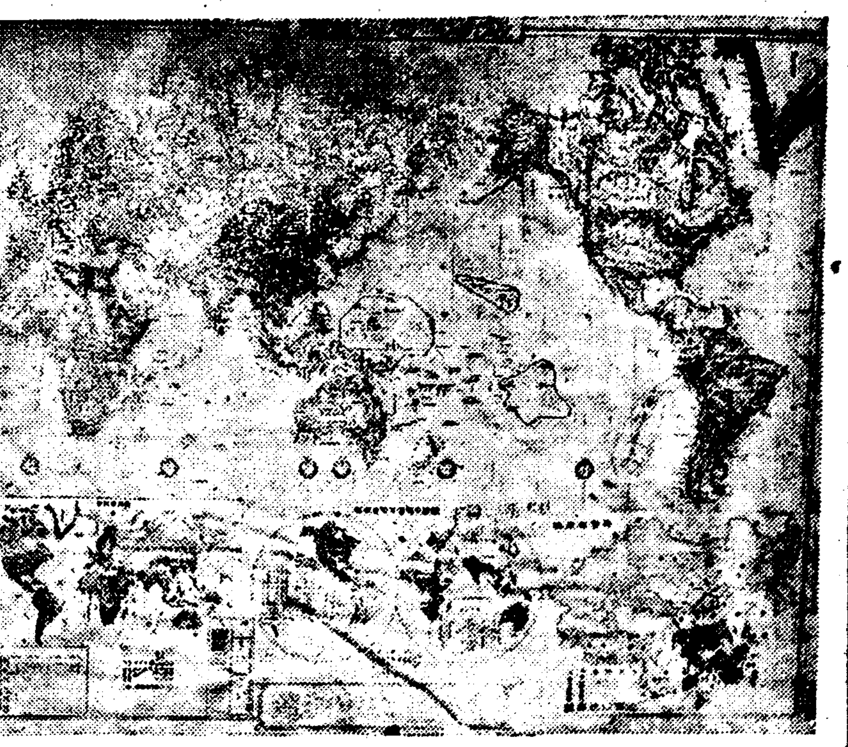
童謠 賞金…三人 各三圓

選外佳作 薄謝進呈

兒童自由畫 五人 賞品 水彩畫具一式

『規定』臨本畫復寫는無效로하되學校擔任先生의 選拔도歡迎

朝鮮日報社編輯局



독자께드리는 새해의선물

「저네바」의진보나「뉴욕」의 통신이 당일로세계의정국을 뒤흔들고각국의시장(市場)을소란케하는 세상스러운일이아니거니와 일천구백삼십사년을마지하라는세계의대세는실로긴장의극도를보이고잇습니다 더욱이 태평양중심으로하고벌리는렬강의 쟁패는국동방에 몸을부처고사는우리들에게도 써업시 무거운관심을 가지도록합니다 이써를당하야우리로서 가질바 가장급하고귀한지식은 세계를알고세계를보는 눈을 가저야만될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본사에서는일즉이최신세계 지도를발행하야 독자에게드리겟다고 약속한바 잇섯거니와거간에 준비가완전히되엿슴으로 적으나마 새해선물로결하야드리고저 합니다 이번에 드릴지도는 본사조사부에서 반년을두고정성을 드려만든것으로일즉이 조선문지도로서는 볼수업는정밀한지도입니다

本社編纂 最新世界全圖

四大特色

一、地名翻譯은正確 一九三〇年에새出版의新地圖로부터 地名을翻譯하야各國의原音그대로正確한 發音을取함

二、都市記入은精密 政治上經濟上歷史上主要都市는無漏記入을原則으로세운바적은紙面으로는最善의精密을圖하엿다

三、交通網詳細表示 本地圖가交通地圖는아니나 一見에 世界大勢를鳥瞰할만한充分한內容을가젓습니다 여러가지 意味에잇서交通의 煩衍가큰만콤鐵道航路海底電線路等은勿論航空路까지도詳細히表示한것

四、特色잇는附錄 한개平面地圖로써世界大勢를단번에알게하기는너무나不足하야 一定한體系아래多數의附錄을모아 그려너엇습니다

附錄內容

1、世界現勢圖 한便으로는列强과쏘베트聯邦또한便으로 列强과列强이 서로서로對立하야現下의地球우에는各勢力의複雜한交叉를이루고잇다 우리는하나의그림으로써이複雜한勢力의互相交叉를보이는 同時다시列强이領土를擴張해온지그만年代表를너허 그史的發展의한參考를提供코자함

2、極東現勢圖 오늘날 極東에는滿洲國이 새로서고中國과쏘베트領域이漸次擴張되고 또英米佛各國이 中國의市場을에워싸 角逐하는터라 모든勢力의對立을가장代表的으로 表現한다고볼수잇다 더구나極東에사는우리로서는極東에對해서 關心하는바 自然不小한터임으로 世界現勢와아울러極東現勢를 밝히어둔다

3、經濟쁠럭、通貨圖 未曾有의 恐慌은 市場爭奪을激化시키고 關稅障壁을 築造시키어 全世界를몇개의 쁠럭으로 分割하게하얏슴은 아니라 各國의 貨幣制度를 뒤흔들어 金停止와金本位의 維持로 非常한混亂을 이러키게하얏다 우리는 그두가지의 現象을一目瞭然하게圖表를너허 더한층 거긔對한 認識을明確케하얏다

4、各種統計表
1、列國의面積、人口、生產指數、貿易、輸出入、國債正貨準備及通貨流通等의 統計表
2、列國의 陸軍、海軍、空軍、軍事費의 比較와 및華府倫敦兩會議의 海軍力制限表等

輯安、寬甸方面에 朝鮮○○軍 反滿雜色軍等 千數百名集結
無時로國境에出現하므로 當局側은極重大視

【新義州】 모방면으로조사한바에의하면 대안즙안(輯安)관전(寬甸)봉성현(鳳城縣)안동현(安東縣)각지에 산재한 조선○○군급반만잡색군의수효는천수백에달하는바 그들은 국경대안일대에 무시출몰함으로 일본관헌은상당히주의하고잇다하며그들의분포상황은다음과갓다고한다

◇輯安縣第五區

地名	頭目或隊名	人員
台上	董作順	八〇
八寶洞	中山好	三〇〇
	李鳳閣	一〇〇
	國民府	八〇

◇寬甸縣

	國民府	六〇
瀨溝子	全國軍	八〇
盤道嶺	綠林好	三〇〇
泉山村	千勝武	六〇〇
八河灘	天 元	五〇

◇鳳城縣

蒲石河	新 安	三〇
磊小河	吳太山	八〇〇
唐家硅子	三軍隊	三〇〇
後王家溝	青山好	一五〇

◇安東縣

老人溝	鎭江龍	二五
後大東溝	致喜山	一二〇
中流村	海 蛟	二〇〇
計		一三五五名

朝鮮○○軍에서 壯丁軍人을募集
滿國人시켜武器等을購入

【新義州】 모처착정보에의하면대안만주관전현(寬甸縣)케오구하투하(河漏河)에 잠복활동중인 조선○○부사령박대호(朴大浩)는일본관헌의도강이 부자유하든 류빙기(流氷期)를리용하야강안지대에진출활동하려고목하부근의주조선인중에서년령이십세이상이십오세까지의청년들을군인으로모집중이라하며동지만주국인부호곽(郭)모에게대형(大型)모젤식과스총십오정과 탄환이천발을 사오라고 강요하엿다고한다

京城府內 保護木 告示로指定

경성부에서는 시내에잇는 큰나무와 유명한나무와및 기타사적(史蹟)에관계잇는 나무를 조사한결과 경긔도지사의 고시(告示)로 다음과가튼열다섯나무의보호목(保護木)을지정하얏는데이나무들게는 법랑철판(法瑯鐵板)을 부쳐 일반의 주의를 끌기로하얏다하며 소재처와 수령은다음과갓다한다

白松(齋洞八三)樹齡六百年▲同上(旭町一丁目三六)樹齡六百年▲同上(通義洞三五)樹齡四百年▲柏杉(雲泥洞一一四)樹齡百五十年▲同上(諫洞九七)樹齡二百年▲公孫樹(蓮池洞一三六)樹齡二百年▲同上(杏村洞一)樹齡五百年▲同上(旭町一丁目三六)樹齡四百年▲同上(桃花洞一〇)樹齡三百年▲一位樹(長谷川町一一五)樹齡二百年▲槐木(鍾路六丁目二九七)樹齡三百年▲同上(社稷洞一六)樹齡五百年▲同上(橋南洞一六)樹齡四百年▲同上(貞洞一六)樹齡九百年▲同上(若草町一〇七)樹齡五百年

平壤局窓口에서 百五十圓盜難
受取人보다먼저바다가지고逃亡 當局은責任업다言明

【平壤】 린접각경찰서관내에 시국표방 혹은 흉괴강도들이련일출몰하여 정초에가는 년말의경찰은물론 일반주민의 신경을날카롭게하고 잇거니와 평양서에서는사건을미연에방지코저십이월일일부터 각금융조합、우편국소、각은행등에는 무장경관을 파견하여 경계를하기로결정되엿는데 특별경계를 압두고지난이십칠일날 오후일시백주에평양부내욱정(旭町)중미(中尾)자건거 상점사무원 상전화자(上田花子)(二〇)가 삼백원과 백오십원액면의 위체(爲替)를 가지고 평양우편국케오로 창구에서 지불을 청구하고 기다리는동안 난데업는 삼십전후되여보이는 자동차운전수모양의 남자가 손빨니바더가지고달아나고말엇다 이런일을당한피해자화자는권긔금액이자긔손에들여오기전에다른자에게빼앗겻슴으로그책임이우편국에잇다하여문제를일으켜고우편국당국에서는그시간에위체지불권수가 만핫슬뿐아니라 우편국으로서는 성명과 액수를 물어부합되면 즉시 지불하는것이 정측이오 인상까지를권부하기할 수업는것은 사실인데 그당시에도 범인은 미행하여액수를 들어두엇다가 압서나가면서 액수를불너 부합되자 내여미는금액을『포켓트』에집어넛코달아나고만것이어서 책임을질수업다 주창하여 목하분규중에잇다

犯人의 인상은 貯金詐取未遂者와恰似

평양우편국창구에서 대금을 쎄서가지고 다라난 권말은권항과 갓거니와 권과범인은 약십여일전 일본을 괴입한우편저금통장을이백원의무위조하여가지고와서 사취하랴다가 계원에게발각되여 달아난사건의 주인공의인상과 흡사한점이잇서 이방면으로의수사를진행중이라한다

나치안흔아들이 戶籍에들어
取消코자提訴

지기는 나은일이업는 아들이호적에뚜렷이 기재되어잇고 또그아들의 나은아들과딸들이 수두룩이자기의 손자혹은 손녀로호적에 언치어잇다하야 이것을바로어달라고 이십구일 경성지방법원에 소송을이르킨 사건이잇섯다 원고는시내 원정(元町)사정목칠십번지김영진(金英眞)이라는로파요 피고는 가튼집에살고잇는 오정순(吳正順)으로 오정순은 그의죽은 아버니권장옥(權長玉)과 죽은어머니 김환이(金環伊)사이에 출생한 장남인데그의 부모가 다죽어버렷슴으로 개국오백이년사월에 원고의죽은남편 오덕현(吳德鉉)이 그를자기집에 더려다가 기루엇다 그런데 원고의집에는 아들이업슴으로 그를자기의 친자식과가티사랑해 기루고잇섯더니 륭희삼년 민적편성할적에 그릇기입되엿다 그리고원고는 명치삼십구년십월에 피고를 장가를들려서이래 이남이녀를 출생하야모다입적을 시키고 또소화사년사월에는 원고의남편 호주오덕현이사망하엿슴으로 피고는 그호주상속을하엿다 그러나 그는권가(權哥)의 아들이오 오가(吳哥)의 아들이 아니니 친자관계가업는것을확인하여달라하엿다한다

巡捕를襲擊코 拳銃強奪逃走
◇被害者는生命危篤

【新京】 본월이십칠일오후오시오분경 신경총령사관 경찰서순포(巡捕)김태규(金兌奎)가북륙조(北六條)사긔집으로도라가는길에 고사청이정목 국제운수합숙소(國際運輸合宿所)부근에이르자 돌연만주국인 괴한삼명이출현하야 배후로부터 곤봉으로후두부(後頭部)를구타하야김순포(金巡捕)를혼도케한후권총을 강탈하야가지고 도주하얏다한다 이급보를접한신경서와 령사관서에서는 즉시전서원의비상소집을하는동시에권시에비상선을느리고고산(高山)서장총지휘하에 극력범인을 수사하는중이며기화(奇禍)를맛난김순포는 즉시만철병원에 수용하고응급수당을가하얏스나 다량의출혈로생명이염려된다고한다

來月一日以後부터의 國際連絡運輸換算率

십이월일일부터 철도국과철도총국선(鐵路總局線)과의국제련락운수의환산률은다음과가치칭하얏다

一、鐵路總局 銀百圓에 金百十三圓
二、日滿及歐亞 金百弗에 金三百三十圓三十三錢
三、日中 銀百弗에 百十一圓

朝鮮內農民組合 一千四百十五處
當局의嚴重한取締로서 昨年보다三百組減少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그동안좌익사상(左翼思想)에대하야철저하고 엄중한취체를하여온까닭에근년에이르러 로동운동은동면(冬眠) 상태에 잇는터인데당국에서는 다시좌익농민운동에도 취체를 엄중히하고 잇는중이다 그동안에 취해온 좌익로동운동의 탄압은다만로동운동의 괴세만을 꺽근것이아니라 농민 운동에도 간접으로 그영향이현저하야 작년십일월의 권조선농민조합수효는 일천사백십오개소로 그관계인원수효가 십삼만이 되든것인데 그후일년만인 최근에이르러서는 조합수가 일천백개소로 감격되고 인원십일만인으로 감소되여 농민운동도 활기를일케되엿다한다 당국에서는 이것이좌익사상 자연해소의 동향이라 고해석하야 저옥이깃버 한다고한다

寫眞專門 教育機關設置

조선에사진술(寫眞術)이수입된지오십년에 갓가운바 이것을체계잇게 학리적으로 연구또는교수하여온 긔관이 청년회학관사진과가 잇섯든바 이번에이르러사정상 폐지하게되엿스므로 경성사진사협회(京城寫眞師協會) 경성인상사진연구회(京城人像寫眞研究會) 경성사구회(京城寫究會) 등 세단체가 련합하야 청년회학관사진과 담임강사이든신락균(申樂均)씨를초청하야다가 사진전문 교육긔관을설치하리라한다

平北佛教總會 寧邊妙香山에서

【熙川】 평북대본산묘향산보현사(平北大山本妙香山普賢寺)에서는 불교사업을 혁신하자는 목적하에 오는 십이월오、륙양일에 평북천도총회를 개최하고 여러가지를 토의할 예정으로각군(各郡)에 널녀잇는 사찰일백십여개소 주지에게 집회통고를 발송하얏다한다

◇討議事項
一、本末寺間에서義務를確守할件
一、事務進行方針을改正할件
一、本末寺評議員十名改選의件
一、森林促殖會에 關한件

秀岱金谷學院設立

【瓮津】 황해도옹진군마산면수대리(馬山面秀岱里)는근래금광으로말미아마 날로 발전하여금광구역내 만도인구 삼천여명에달하나 교육긔관이 업슴으로큰곤란인바 리만근(李萬根)외제씨의 발긔로 금곡학원(金谷學院)설립인가원을 당국에제출하고지난달 하순부터 아동오십여명을 모집하야 가지고교수중이든바 일산 당지경찰서에서 허가업슴을 리유로교수를중지식혓는데 주민들은 하로밥비이학원이인가되기를기다리고잇다고한다

流行性腦膜炎 今年에突然激增
豫防이至極히困難한關係로 府民의脅威는莫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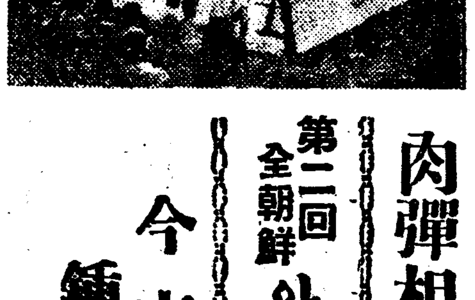
지난십일월중 경성시내의 전염병환자발생수를보면총계가이백팔십명으로 작년동긔의 이백명에비하야 팔약일개월간 팔십명의증가를보엿는데그중에가장만이발생한것이장질부사(腸窒扶斯)의일백사십륙명이 그것인바이것은작년동긔보다오십사명의격증을보엿스며그다음으로는성홍열(猩紅熱)륙십명과『지부데리아』오십사명이며 그외에주의를끄으는것은 류행성뇌막염(流行性腦膜炎)이작년에는 하나박게업든것이 금년십일월에는 세명이나되엿고 작년일월부터동년십일월까지는 열일곱박게 업든것이금년은일월이래십일월말일까지에 삼십사명이나되여작년의갑절이되엿스니뇌막염은호흡기의 전염병이나 소화긔의전염병과 달라그예방이 지극히곤난하므로 시민보건상 절대의협위가되는것이라한다

蒐集된指紋原紙 三十萬枚를突破
『카ー드』도今年內로完成

과학적으로 범죄수사를하는데가장큰 역활을하는 지문(指紋)의수집은 경긔도경찰부에서 각도의 경찰부를 독려(督勵)한결과 최근은 원지(原紙)가삼십만매를 돌파하게되엿다한다 그리하야 이것을가장 효과적으로리용할방법으로 긔대하여오든 지문『카ー드』는케(制)는명년봄리화학연구실(理化學研究室)의완성과동시에실시하게되여『카ー드』는금년중에 경무국으로부터 각도경찰부에 보내게되엿다하며이『카ー드』는 범죄의 발생과동시에 인상(人相)전과(前科) 유무기타 범죄의발단등을 곳알수잇는 아주진보적용의자(容疑者)의 검색법(檢索法)이라하야실시후에는 조선경찰수사망에신긔원(新紀元)을지으리라한다

苦力卅八名燒死
深夜出火로잠자다避身못하야 二十九日新京의慘事

【新京】 십일월이십구일오전이시경목하장곡천조(長谷川組)의손으로 신축중인 신경마장(新京馬場)의 바라크건물구리(苦力)막으로부터출화하야 때마츰불어오는강풍에화세는더욱맹렬하야 순식간에 동원옥(同一棟)을 권소하얏는대동막중에서자고 잇든 만주인미장이모군은 일백이십명중 한옥장(韓玉章)(二〇)외삼십칠명은무참히도소사(燒死)하얏다한다 이급보를접한 신경소방대와 성내(城內)소방대에서는 벼를노치지안코 현장에달려 갓스나 불이첫든것과 화세가원악축하얏든관계로 마참내 구하지못하얏다한다 출화의 원인에대하야서는 수도경찰청(首都警察廳)에서관계자를 취조중인데 듯는바에의하면양초불로부터무근지편(紙片)에 연소(延燒)한모양이라한다



肉彈相搏의大試合
第二回全朝鮮 아마추어 拳鬪決勝
今夜七時부터
鍾路青年會講堂에서
入場料 一般五十錢 學生三十錢
主催 朝鮮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

警官의亂打로 密輸者溺死
廿八日安東縣서

【安東縣】 이십팔일밤여덜시반경에 압록강에서 밀수단삼십여명이 면포와기타 밀수품을등에지고 륙농을넘어서 다름질하다가 동밀수단중에 망보는사람들이 권긔 불로안호를 주자이들은무한공사 저루장(無限公司貯溜場) 짐을지고약오십미돌이나되는덤분을형에 드러가노 한손으로는 짐을잡고 한손으로난헤엄을처서 저편언덕에다아스나그곳사방으로 해관리 오십여명과 경관십여명이 포위를당하야그들은 자긔들이 신변을위협시하야 그집을버서노코 사방으로그포위진을 뚤코 도망하엿으나 그삼십명중김병축(金炳祝)(三〇)은밋처 도망치못하야인나종에헤엄처서 언덕에 나왓스나해관리들과 경관들은 곤봉과돌을들어 따림으로 다시그곳에드러가서 헤엄을치다가 다시나올나고할적마다 무리하게도발길로차서 또물에빠지여 다시나올긔운이 업슴으로 무참히도익사(溺死)를당하엿다한다

客組對勞組紛糾 雙方의意見懸隔
不日內勞働者衝突未免 形勢去益險惡化

【新浦】 루보=진남포객주조합대삼로동조합사이에 일어난 소위로동쟁의사건은 사건발생이래 십여일이나되도록 여러방면에서 최선을다하든 조정도결국 수포로도라가고말엇다 객주조합측에서는 건물은공공한단체에 긔부하기로하되 구조합원명의를 취소하고 새조합원으로 넘기엿다가 그뒤에다시총회의 결의를어더서 긔부하겟다는것과 로동문제는 이미허락하엿다는 조합경상비권원을 부담한다면 로동부를 철페하겟다는것이며 (객주조합측주장) 건물에대하여 구조합원에게 넘길것이 아니고 신구 조합원과 사회유지 멧멧사람의명의로관동소유를 만드러두엇다가 상당한 긔관이 생기는때에 긔부하자는것과 로동부문제에관하여 로동 조합측에서는 권원경비는 다할수업스나륙백원까지는 될수잇는듯 한것(삼로동조합주장)임으로건문제와 로동부문제가 서로집근한점은 하나도업고 아즉철리의차가잇는이만치 양방의 태도가서로강경함으로 객주조합에서는 지난 이십구일밤에 역원회를열고 토의한결과 무진회사와소송문제도 십이월사일까지 긔안으로 해결되지 안으면 커유목적대로로동부와소송문제를여전히 진행키로 가결하엿다한다 그리하여 로동조합측에서도 객주조합에서 최후결정이 그러타면 우리도대책을강구하여야하겟다하야 일간 삼로동조합관계자들이 모히여 대책을 강구하리라는데결국 타협의 서광이 업슴으로 이러케되면 양측은일간 또다시로동자간에 충돌이생길것이라하여 일반이 매우주목하는동시에진남포경찰서에서는 만일을념려하여 정사복경관을배치하고 암암리에 극히경계하는중이라고한다

三十年守節의代償이 『나는당신모르오!』
기막힌안해同居請求訴訟提起

결혼한지 삼십오년이되어도 민적에너어주지안코 마츰내는 너는나의안해가 아니라고 하고대문안에 발도들이지못하게 한다하야 남편과시아버니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부부확인및동거、입적수속청구(夫婦確認及同居、入籍手續)의 소송을이르켜서 방금법정싸움을 계속하고잇는 근래에 보기드문소송사건이잇다 사건의원고 경기도개성부대화정(開城府大和町)구십구번지 리을임(李乙任)은 금년사십구세된녀자로열네살때에 개성본정(本町)칠백팔번지박재양(朴載陽)의 장남으로 당시열다섯살된박용후(朴用厚)와부모의명령으로 서로 결혼하야서집에가서 가티살아오든중 남편 박용후는 그가스무살때에 일본으로 류학의 길을떠난뒤이래 행방불명이되엿다 그러나 시가에서 시부모를 극진히봉양하고 간혹 친정도 왓다갓다하면서오매불망으로 남편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절개를 굿게직히고잇섯다 그럭저럭 세월이여류하야 삼십년만에 금년삼월에남편이뜻밧게집으로도라왓다 그당시에는 아모치도안코지나지난팔월에강원도(江原道)방면으로려행을갓다가와서는 원고가 사진에차저가즉 자긔의안해도아니고 친연타인이라하야 집안에들어오지 못하게하며 민적에너어달라고 요구하여도 친연불응함으로 드되어 소송을일으킨것이라 하엿다 오는십일일에 공판이 열리게되엿다

鍾路署管內淸潔

종로서(鍾路署)와생재에서는오는사일부터 아래와가치 우의청결을시행한다고한다

四日
內資洞 社稷洞 弼雲洞 需昌洞七一〇九 體府洞 昌成洞 通義洞 積善洞 玉仁洞 通洞 樓下洞 樓上洞 宮井洞 新橋洞 孝子洞 淸雲洞 光化門通一

五日
公平洞 淸進洞(一ー二七) 鍾一(三九ー六八) 鐵染洞 瑞麟洞九三ー一六九 淸進洞一八ー 鍾西大門町(一ーー九 一二〇ー一八九) 光化門通(七七ー二二三) 鍾一(一ー三八六ー九九) 中學洞 壽松洞 諫洞 光化門通(二ー七六) 唐珠洞 西大門町一(一一九 一八七ー二二七) 西大門町二 需昌洞(一ー六一 一〇一ー二五〇)

六日
勸農洞 雲泥洞 益善洞 臥龍洞 苑洞 桂洞 嘉會洞 齋洞 慶雲洞 寬勳洞 松峴洞 堅志洞 安國洞 八判洞 三淸洞 花洞 昭格洞

七日
瑞麟洞(一ー九二) 南大門通一 仁寺洞 鍾二(三一ー三〇 六七ー一〇一) 樂園洞 敎義洞 鍾二(三一ー六六) 鍾三(一ー五八六ー一〇二) 貫鐵洞 觀水洞 長沙洞 授恩洞 鳳翼洞 薰井洞 鍾三(一六一ー八 五一〇ー一八〇)

寧日업는長津水電會社
所有權侵害等으로 水電會社長被訴
承諾업시電柱樹立햇다고

【咸興】 장진수전공사토지매수문제는 회사측과 지주들사이에 예와들이 날이갈수록심하야어떠한사태를 야긔할지 추측할수업다하는 일반이주지하는 바어니와 이번도소유권침해배제급 원상회복청구(所有權侵害排除及原狀回復請求)로 채용목변호사를대리인으로 지난 십팔일함흥지방법원에수전회사대표야구준씨를상대로소송을제긔한사실이잇는바 그내용은 장진군신남면갈전리(長津郡新南面葛田里)에거주하는한석훈、장여군(韓錫勳張如君)은 자긔네들의소유토지인갈전리、상평리양처에지주의하등승락도업시전주를세우는등불법행위를감행함으로그와가티 소송을제긔한것이라고한다

少年勉勵會의 『童話音樂의밤』
盛況裡에終幕

【順川】 평남순천장로교소년면려회에서는 동화음악의밤을지난이십오일 오후칠시반부터당지 레배당에서 개최하엿는바 정각전에 청중은만원이되여 당외에까지 수십여명의 청중이잇섯다고하며 순서는 회원일동의 찬송가와 김봉경(金鳳京)씨와 기타 케씨의동화가잇섯고 김명식(金明湜)씨의 바이올닝 독주가잇슨후폐회하엿다한다

平壤同德學校 校舍增築決定
無産兒童의唯一한敎育機關 이미基礎工事에着手

【平壤】 평양부내선교리(船橋里)동덕학교(同德學校)는 자금부터십이년전최이태(崔以泰)씨외이삼인이 당지일대에 거주하는 적빈아동의문맹을 퇴치코저 소규모의강습소를 설치하고 이십여명의 어린이들에게 간이한학술을교수하여오든바년부년학생의수는 증가하여 현재에는삼백여명에달하엿다 이때문에 교실의 협착을고하게되엿고 도학무과당국에서는 사립학교로인가를밧고경영하라는 지시가잇서 명년부터는 륙학년제의 완전한 사립보통학교로승격신청을하기로되여 공사비 삼천오백원을 투입하여건평사십구평의련와 이층의교사를 증축하기로부형회와리사회에서결정하야모혀드는동정금을가지고 위선 긔초공사를 개시하여건축에착수하엿는데준공은명춘삼월중순경으로이루말미아마동덕학교는 충실하게되리라는바 동교를 위하야 직접진력하는리사들과 동정금을 기우린유지들의 방명은다음과갓다
▲理事 魚塗然 曹晩植 鄭斗鉉 金鍾英 周基元 洪[illegible] ▲同情金喜捨者芳名 學父兄會三百圓 張世煥 李文煥 韓[illegible]玉 朱相先 吉野勝男 池錫[illegible]各二十圓 朱丙[illegible] 崔[illegible]各三十圓 金永龜十圓 金基善五十圓 鄭斗鉉 崔以泰各五百圓

盛況일운金文輔獨唱會 (平壤金千代座에서)

海州地方法院의 公○判○三○件

【海州】 지난이십팔일 해주지방법원 형사청에서 안전판사(安田判事)와 도부검사(渡部檢事)의입회로살인(殺人)살인미수(殺人未遂)방화죄(放火罪)등의 아래와가튼 세가지의공판이 잇섯다

丈母打殺被告에 懲役七年求刑

【海州】 장연군장연읍 동리(長淵郡長淵邑東里)에거주하는 김동호(金東浩)(二七)는검사로부터 살인죄(殺人罪)로 징역칠년의 구형을바덧다 그는김소사(金召使)라는자긔장모와삼십년간이나 동거하여오든중 삼사년전부터장모가반신불수가되여 대소변을 자유로 보지못함을귀치안케 역이든중 지난오월십일에 술이취하야 발길로차서 죽인것이라는바 언도는래월오일이라한다

本夫毒殺未遂犯 各五年求刑

【海州】 송화군운유면송학리(松禾郡雲遊面松鶴里)에거주하는고윤겸(高允兼)의 처조음전(趙音全)(二九)이란녀자와그동리에사는 김성운(金成雲)(三二) 이란자는 입회검사로부터 살인미수죄(殺人未遂罪)로 각각오년의구형을 바덧다 전긔조음전은 자긔남편의 눈을피하야 전긔김성운과 정을통하야오든중 일상남편이 장해가됨으로 그간부김성운과 공모하고 지난오월이십일에 본부고윤겸의 밥에다가양잿물을 석거서 메여죽이라다가 발각되어 그목적을 이루지못하엿다는바 그언도는 래월오일이라한다

妬嫉로放火 懲役二年言渡

【海州】 해주읍남본정에거주하는리복녀(李福女)(三二)란녀자는 [illegible]판사로부터방화죄로징역이년의언도를바닷다 그는자긔남편박운영(朴雲永)이가동리사는문선녀(文仙女)란녀자를첩(妾)으로정한후 자긔를 돌보지안음으로 그에분노와 질투심이복바치여 작년이월십일과 금년이월륙일에 사차나 전긔문선녀의 집에 방화를한것이라한다

鎭興公普校 學級復舊運動
學父兄會蹶起하야 陳情委員派遣

【鎭興】 거금 사년전에 불행히 한학급을축수당한 진흥공립보통학교(鎭興公立普通學校)의 당국자는 물론아어니와 동학부형회에서까지 총결긔하야 그부활운동을 수년래 맹렬히하얏스나 이버것아모런 효과를엇지못하고잇든중 지난이십오일에 개최된 동학부형회 집행위원회에서는 『만난을돌파하고 적극적으로부활운동을 최후까지해보자』라는 스로간아래에 한층더맹렬히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진정위원두명을 위선 함남도당국에 파견하기로되여 진정위원의일행은 수일내에 진정차로출발하리라고한다

金蘭浦에火災
被害約千圓

【通川】 지난이십구일오전두시에강원도 통천금란포구(通川金蘭浦口)에서는일촌락이고요히새벽잠을 이루고 잇는중최씨의집에서 발화되여 여세인바다바람으로 연접한방씨의 집까지연소되고 소방조의 활동으로곤근 진화되엿는데 그손해액은약천원에달한다고한다

鐵原에初雪

【鐵原】 철원지방에는지난이십구일에 금년처음으로 눈이나리기시작하엿는데작년과는약간늦다는바 타지방에 비하야훨신고대지방인철원은비교적매년늣게눈이나린다고한다

酌婦、唱女等의 保護策講究
借金、待遇、給料等調査 全州署保安係서

【全州】 가정의형편또는일신의사정으로인하야 면치못할전차금(前借金)을쓰고 고주(雇主)의학대、 착재의롱락속에서신음하고잇는불상한녀자들이전주시내에도 그수가 적지아니한데 전주경찰서 보안계에서는 이즈음자들녀자들을 보호하기위하야수일전부터시내각처에산재한음식점、 료리집등의고용녀들을호출하야그가정의사정차금、로동시간、대우、월급기타를일일히 조사하야의심되는점이잇는자는그고주를호출조사하야쌍방의유리한방법을취하도록권유하엿다한다

德安無産夜學

【豐川】 황해도송화군진풍면덕안동긔독교청년회(黃海道松禾郡眞風面德安洞基督敎靑年會)지육부에서는 근방무산아동륙십여명을 모아매일 야학을시긴다는데 교사들은 모다 낫에는들과집에서농업을 힘쓰고밤에는 교수에진력한다는바학과는초등교과서를준하여가르치며 교사는조병국 박정업 박효숙 박규영 여능현(敎師 趙秉國 朴貞業 朴季淑 朴奎映 呂能鉉)제씨라고한다

親舊土地를抵當 大田署에被逮取調中
義子婚禮費求코저

【大田】 대전동면마산리(東面馬山里)에사는 송병헌(宋明憲)은 친구의토지를고리대금업자에게 잡혀쓰고 이것이발각되야 이십사일 드듸어대전서원에게 검거되야 방금엄중한취조를밧고잇는중이라는데 전긔송씨의안해가 시집올때에 다리고온아들인 리재영(李在英)이가 파면이되도록 장가를 들이지못하야 항상 걱정이되야오든바 자긔의 친구인대전읍 본정에 사는 박로삼(朴魯三)의인장을 위조하야 그의소유토지를 등긔부에 저당권을설치한후모일본인 고리대금 업자에게오백여원에 잡혀가지고 리재영을장가들이고 부채도 얼마간 갑흔것이라고한다

通川管內에 犯罪件數減少
八月末까지二百件에不過 思想犯罪은全無

【通川】 통천경찰서관내의지난팔월말까지의 범죄건수는 이백건에불과한다는데 이것을 작년동긔에비하면 대단히 감소되얏스며 또달은군에 비교하여보드래도 퍽적은편이라는바 그중에는 사상범은 한사람도업다고한다

本報讀者優待

【北栗】 황해도사리원에잇는 해용사진관에서는이번재령내종시(內宗市)에출장소를두고 사진업을개시한바 이를긔념키위하야 본보독자씨에게는 특별히 할인하기로하얏다한다

梁山에火災로 二名이死傷
家屋一棟六間이全燒

【梁山】 지난 이십팔일 오후한시사십분경에 양산군 하북면신평리 (下北面新坪里)박묘인(朴妙仁)의 집에서불이나서 일대참상을 연출하얏는바 주인박묘인은 지난이십삼일경에 출타하고 그의처인 최(崔)씨는편지부치러나간 사이에 박묘인의실부(實父)이박정승(朴廷昇)씨던 박복만(朴福萬)씨가 발화됨을발견하고 현장에 달려가보즉벌서불은 사랑채를 에워싸고연소하는중에 그방안에서 구해달라는 소리를듯고 구출에급급하야의복에 불이부튼그를 그대로안어내다가박복만의두손은 화상을당하얏스며 구출된 박정승(七九)씨는 동일오후세시경에 절명되엿고 피해액은칠백여원으로 가옥이동 륙간이전소되엿스며곡물기타가산 소실피괴가 약사백원에 달한다고한다

雲峴宮의봄 (一五)
金琴童 作 / 靑山 畵

十九의五

「자 이것 보게」
홍선은 자긔아페 노힌 대전통편(大典通編)을 펴 보엿다 성하는 홍선의 아르키는곳을 보앗다
……一、정一품 쌀두섬여돐말콩 한섬닷말
……二、종一품 쌀두섬누말콩한섬닷말
……三、정二품 쌀두섬두말콩한섬닷말
……四、종二품 쌀 한섬열한말 콩한섬닷말
……五、정三품 쌀한섬아홉말 콩한섬두말
……六、종三품 쌀한섬닷말 콩한섬두말
……七、정四품종四품 쌀한섬두말 콩열서말
……八、정五품종五품 쌀한섬한말 콩열말
……九、정六품종六품 쌀한섬 한말 콩열말
……十、정七품종七품 쌀열서말 콩여섯말
……十一、정八품종八품 쌀열두말 콩닷말
……十二、정九품종九품 쌀열말 콩닷말
……(대군(大君)에게는 봉석 달에 한섬을 더줌)
……홍년에는 더 감할 경우도 잇슴
그것은 당시 정一품부터종九품까지 열여덟게급의 녹봉이엇다。

「쌀이 엇지되나」는 질문은、 성하에게 잇서서는 긔이한 질문이엇다。
「영어 김병학―하지。 정一품 보국 숭록대부 김병학일세그려。 이름은 조치。 그러치만 나라에서 내주는 녹봉은 쌀두섬여둘말콩한섬닷말밧게는 업서。 그러나 김병학 하면、 그집안의 식구가 얼마나 되나。 청지기가 二十여명 별배가 二十여명 구종도 또 그만치 헤 거다가 그놈들의 녀편네 자식 모도 잇서 사랑 친솔만일세 내실에는 또 얼마나 하인 비복들이 만흔지 몰라。 적어도 영어의 집에려서 먹고 사는 생명이 백명은 썩 넘을걸세 그 백여명의 식솔을 거느리고 잇는 주인 대감의 녹봉이 얼마나 하면 겨우 쌀한섬엿말 콩한섬엿말―말하자면 영어의집 고양이색기 한머리도 먹다 부족할것 박게는 못되네 그려―」
당시의 제도상 무슨 벼슬이던 하면 종九품의 한개의 녹사에 지나지 못한다할지라도 백주에 보행(步行)으로길을 못간다 하다못해 나귀한머리 마부 하나 하인하나 이만한 하인이라도 잇서야지그러치 못하고는 길을 나가지을 못한다。 신분이 초헌(軺軒)을 타게되면、 적어도 초헌에 부축할 별배여덜명이상과 구종 여덜명이상은 가져야 한다。
「재상이 죽은뒤에 그 장례비용이 업는것을 자랑햇다는것은 녯날일―지금은 한번행차에도 그만한 위엄을 보이지 안을수가 업게―제도가 그러케 되이상―그러고 녹봉이 또한、 그러틋 박한이상 매관매작을 하지안코서、 어떠케 살아 가겟나? 제도부터가 벌서 매관매작이나 하청을 하지 안코는 백여나지 못하게 되엿스니안 그사람만잘못햇다고 책할것이 아니라네。」
거대한 생활을 하지 안흘수가 업는 제도를 우며 누코、 그우에 적은 녹봉을 내여 주는것은 배면으로 매관매작을 장려하는 일로 볼수도 잇섯다。
아직것은、 거저 당연히 그런일이어니 하여두엇든 일에 대하여 홍선의 지적을 밧고 성하는 비로소、 경이의 눈을 떳다。 그러고 홍선의 얼굴을 뚜러져라 하고 처다 보앗다
홍선은 알아 듯겟다는듯이 머리를 기우려서 성하를 드려다 보앗다。

好評의布袋入

クラブ(구라부) カテイ(가데이)洗粉

겨울에도 오히려 고흔살결의 美カテイ洗粉의 宏壯한 効果요

迫頭한冬! 치위는살결의大敵이오 光輝로운靑春의美를保護합시다

クラブキャラ香氷……クラブルブラン香氷

流行歌 孤寂 不死鳥 (一五八七) 獨唱 李蘭影 오케―레코―드

神經痛 關節炎 류―마지스(痛風) 엔野子之
神經痛因及自宅治療(新刊)說明書參考書類 ―無代進呈― 東京市京橋區新榮通 藥新社 東京出張所

讀者利用

유모 유모를원하는분은 만히주文하십니다 朝鮮日報社廣告部로 來談하시오

書籍 模範中學講義錄全六千餘頁各科分冊新本同樣 定價十八圓特價十二圓에提供하겟소 平北定州郡伊彦面沉香洞 金文植

十二月一日낮부터 三大特選名畵封切
米國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爆笑劇 몬데이의黑手組 全七卷 은데이벙스氏大力演 우슴의大王그는엇겻든지여러분을滿足히웃키고말깁니다 곡보아주서요
마기노超特作品 海洋活劇 我는海의子 全八卷 高島愛子 東明二郞主演 現代映畵로서新味를보여주어서 씩씩하고痛快하기쏫업는帝王篇?
獨乙우파社超特作品 名畵 名花 샷포 全七卷 포―라네그리孃主演 단센쓰와유모아의豐富한內容은 물거운哀戀은詩的感興을도두워주나 靑春의쓰라림고간얼운이야기를보고듯으시라
鍾路四丁目 電光一七五 第一劇場

十二月一日부터大公開 (午後……七時부터始映) 三日은日曜日로晝夜二回公開함 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社特作映畵 社會劇 大尉의딸 全六卷 監督 루―린드뵈리氏 主演 케리쿠바氏
◇파라마운트社特作映畵 大喜活劇 決鬪商會 全六卷 監督 下푸란크닷돌氏 主演 레이몬드크리피스氏
◇獨逸우파社招特作映畵 大雄篇 歸鄕 全九卷 監督 요―마이氏 主演 규스타푸프레릿히氏
次週=十二月四日부터 都會의幻想 巖窟王 十二月七日부터 漢城券番례昇大公演
麻浦桃花洞 電(龍)一三三 桃花劇場

十一月二十九日부터 一週特別大興行 ―特別料金―
◆M、G、M社 米國海軍省共同製作 日本版 全發聲 헬、다이버(世界大海戰) 全十卷 윌리스·비어리 로바―드·몽고메리氏 主演
太平洋爆擊隊以後一年만에또다시近代科學兵器의精銳를모도아 海上과海底와空中에서假裝世界第二次大海戰의壯快한大血戰은 오즉驚異의이다 그規模의雄大量은 자랑함에잇서太平洋爆擊隊以上 이것을確信한다
◆M、G、M特作全發聲日本版 名匠그라렌스·브라운監督 令孃殺人事件 全十卷 로바드·몽고메리氏 조안·크로포드孃 主演 奔放한現代女性에게보내는 一大敎訓篇 迫力잇는快作
◆M、G、M全發聲短篇 一卷
授恩洞 電光九五九 團成社

廿八日封切(六日間) 阪妻關東撮影所超特作 新興キネマ本春提供時代劇雄篇 『日の出』所載原作 吉川英治先生 監督 東隆史 燃える富士 全拾卷 主演 阪東妻三郎・森靜子 助演 岡田喜久也・堀川浪之助・春路謙作・橘[illegible]子・大山卓夫・櫻木梅子 外阪妻プロ總出演 果然!滿都の人氣本映畵に集中す!待望久しき半歲の今日突如公開見よ阪妻が全時代劇映畵界に生死を投ずる空前の猛躍篇
獨乙トービス超弩級全發聲版 監督ヨムンネス・マイアー氏 主演シャロッテ・スザ氏 グスタフ・フレーリッヒ氏 僞國旗の下に 全九卷 スパイ映畵の最高峰!!見よ新妻が敵の間諜であることを發見した時獨乙の將校は如何なる態度をとつたか?今までの間諜映畵と異つてスパイ術の奧技を暴露した緊張とテンポと戰慄!!
新興キネマ本秋超特作 サンデー毎日所載 原作木村毅 監督印南弘 チェッカ 麗人中野かほる主演 碁盤縞の女 全八卷
永樂町一 電本局三四二 中央館

家庭敎師 本人은大學法科三年에在學中이온바中等學校生의英數學等指導하기를希望 府外新堂里不二山洞三四八ノ四四 徐上根

求婚 오직苦學生이거나早失父母無依獨身으로立志堅固한二十歲以上 朝鮮日報社安東縣支局 [illegible]

求婚 無産한二十四歲男子로初中敎育의熱誠者인同志女子二十歲未滿을求함 京城府[illegible]洞三合 [illegible]

求職 저는當年十七歲로學校在學中이온바時間外일할자리를求합니다 高陽郡[illegible]江面孔德里二七五 白[illegible]濬

求職 敎育界經驗만흔者인데外地普校囑託私立學校等地又는利原遮湖宗ㄷ學校從事을願합니다 金[illegible]

求職 二十五歲男子病院調製藥房等就職을希望 五年間經驗有 安州邑建仁里二二六 朴成一

求職 中等三年程度家庭敎師를願함 學年外지는具有求食만可 京城府觀水洞一五二番地 金昶熙

求書 朝鮮日報特刊첫장부터모든것을求합니다(只今까지) 順川敎會少年勉勵會 金曉鍾

女事 務員女商業簿記學院의卒業者에限함獨身者는더욱좃소 自筆履歷書市內는要面談 大田 梁商枝本店

採用 運送部實務員採用斯外經驗者로珠算練習者로努力할靑年을求함 自筆履歷書持參出要 大田本町 全運送店本部

書籍 哲學 宗敎 修養 思想 文藝 詩 歷史 簿記等 讓渡하실분은著者書名發行所損傷程度賣價要通知 江原道通川邑 李亨根

寫眞 經營하는寫眞責任지고夜間敎授할希望者는要來談 京城蓮池洞二三六 鮮滿寫眞專門院

求資 有利事業에資本金十圓以上資本主를求함 有意者는照會하시면詳細答함 城北本町 金[illegible]欽

求職 中學三年修了後商店員或經驗紙物及雜貨商當年二十二歲 市內觀水洞一五二番地 金昶熙

求職 普校修業한十九歲女子看護婦見習이나店員으로採用하야주심을切望하옵니다 京城府蓬萊町四丁目十二 任順

求職 中學校出身東京某會社에四年勤務年齡二十七歲獨身者가有하오데內勤을希望 (保證人有)左記住所照會 松峴洞一一番地 朴大山

世界一週記 (本社東京特派員)

葛衣隊의 獨逸

紅地黑卍字旗가 휘날려 (七)

李順鐸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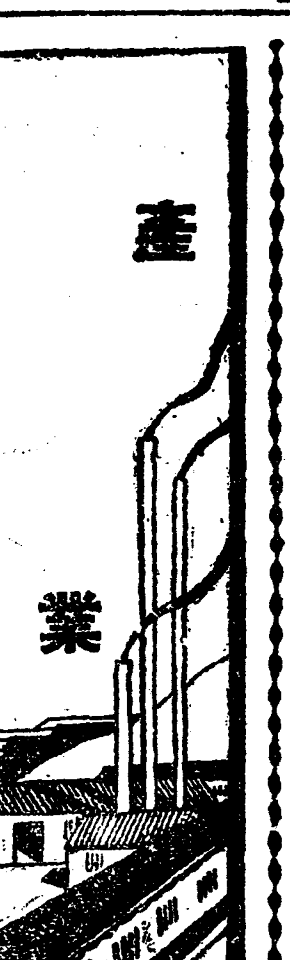
海牙에서 伯林에

海牙를 떠나서 獨逸國境「벤타임」(Bentheim)을 지나기는 七月夜十一時頃이다。여긔서 伯林까지 가기에는 아즉도 八時間餘가 걸림으로 차라리 途中에서 下車하야 宿泊하고 翌日에 가는 것이 덜 疲勞하기도 하고 村味를 맛보는 利益도 잇슴으로 나는 村都市「라이네」(Rheine)에서 一泊하엿다。村都市인 만큼 寂寂하기 짝이 업스며 이때는 맛참 收穫期가 到處에 보리 打作하는 光景이 마치 朝鮮의 初夏의 시골을 지나는 듯하다 여긔서부터 現著히 눈에 띄이는 것은 伊太利에서 黑衣隊 보든 것과 가티 거리에나 停車場에나 車中에나 葛衣隊가 만타는 것과 伊太利에서 『뭇소리니』寫眞 보든 것과 가티 어느 집에든지 『히틀러』寫眞이 位해 잇다는 것과 거리거리에 葛衣社의 紅地黑卍字旗가 黑白赤의 共同旗와 旗와 가티 交叉되어 잇다는 것과 老少男兒의 紅地黑卍字『뱃지』를 단 사람이 만타는 것이다 雖然히 『히틀러』獨裁의 그런가 난다 여긔서 伯林 가는 沿線에는 林野도 만코 耕地도 만타 그러나 耕地는 佛蘭西流의 耕作에는 伊太利에는 엇지할 수 업슬 만큼 粗雜한 耕作이다 勿論 獨逸西南和蘭에는 엇지할 수가 업다 그러나 北部로 向해 가는 데 따라서 더 發達된 것 갓다 彼十三世紀以後의 『한사』同盟(Hanseatic League)에 有名한 한 都市인 『하노바』(Hannover)를 드러서 쑥 여기서부터는 工場의 煙突이 林立하야 『工業獨逸』의 면목이 보인다 그러나 黑煙을 吐하는 煙突은 比較的 적다。아마 이것은 戰爭以後 疲弊한 것이 原因되여서 아즉까지도 作業을 못하는 데인 듯하다。戰爭前에 林立한 全獨逸의 煙突이 쉬지 안코 黑煙을 濛濛히 吐할 때에는 佛蘭西를 爲始하야 競爭하든 各大國들은 果然 두려워햇슬 줄 하나。

伯林雜觀

伯林은 過去國勢調査에 依하면 人口 四百三十二萬七千의 大都會이다。이 市街는 巴里처럼 放射形 市街가 아니오 碁板形의 市街인데 그 道路上에 竝立한 建築도 巴里가티 變化는 적으나 한 特色을 가진 都會라 하겟다。그러나 華麗하고 繁華한 品으로는 巴里에 對하면 村都邑의 感이 잇다 『푸리드리히』街라도 가장 繁華하다고 하는 『운데두덴·린덴』이나 『라이푸쒸헤룬』을 來往하는 人足은 巴里의 半도 되지 못하며 通行하는 自動車도 甚히 적어서 大都會의 感을 주지 안는다。따라서 巴里서는 보를 펴고 다니지 못한 나도 伯林와서는 보를 펴고 다녓다。이는 한갓 外出과 社交를 조하 하지 아니하는 그 國民性과 比較的 觀光者의 적은 것에 原因이 잇는 듯하고 不景氣에도 關係 잇는 듯하다。

伯林에도 巴里式의 『카페』가 만히 잇스나 巴里의 比는 아니오 이에 出入하는 사람도 그대지 만치는 안타『카페』에 안저서 街頭를 살펴보면 男子로서 禮服 닙은 사람은 거의 업고 다 一貧素하며 女子로서 巴里가티 엇지 쐬고 化粧한 女子 굽적 주한 사람은 比較的 적은 것이 現著히 나타난다。元來 獨逸女子는 流行의 支配를 別로 밧지 안코 堅實을 爲主하야 材料나 染色을 選擇함으로 化粧과 被服으로 因하야 나타나는 人工美는 적고 純眞한 自然美가 만타。巴里에 比하면 甚히 적지만은 街女子는 街女에도 巴里型의 女子는 發見하기 어려웁다。우리 朝鮮의 眼目으로는 純眞한 自然美를 그대로 發揮하는 獨裁式의 美가 차라리 讚揚할 만하다。



景品附年末大賣出 全京城商街活氣

◇……十二月一日부터 末日까지 京城商工協會主催

一九三三年도 한 달 밧게 남지 안엇다 거리에는 歲暮의 빗이 깁허간다 閑寂하던 商街에도 一日부터 年末大賣出의 赤旗가 휘날리고 景氣가 잇서 보인다 中小商工業者의 大同團結로서 組織된 京城商工協會의 主催로 景品附大賣出이 시작된 것이다

中小商店의 大賣出은 奉仕的 ◇……大商店은 營業的

十二月一日부터 三十一日까지 府內各商店의 景品附年末大賣出은 品質조코 값싼 專門的인 中小商店의 奉仕的 大賣出로서 年中에 여러번하는 大商店이나 百貨店의 營業的 景品附大賣出과는 그 類가 다른 것이다

이번 大賣出은 買上額 一圓에는 一圓券 五圓에는 五圓券을 드리는 것으로

一圓券의 一等景品은

화류의장

五圓券의 一等景品은

白米十俵

각각 六等까지 잇서 空籤이 업다 한다

그리고 景品券引換場所는 公平洞八十六番地(鍾路네거리)와 鍾路四丁目六番地(배오개네거리)두 곳이라 한다

宣傳行列

이 大賣出을 宣傳키 爲하야 一日午前九時부터 樂隊를 압세우고 大賣出에 加盟한 商店中五十餘店의 商店旗를 들고 하로동안 全京城市街를 行列지어 단이엇다

一日現在 參加商店 百三十九店

一日現在 大賣出參加店은 百三十九店의 多數에 達하얏는데 압흐로도 逐日參加店이 增加되어 朝鮮人中小商店은 거의 全部參加될 모양이라 한다

大賣出加盟店

太應禮商店 日新帽子店 福島商店 徐義從商店 松竹毛絲店 朝日屋 廣云商會 典洞靴店 寶光號 德昌商店 大興고무商會 泰昌商店 李澤醫商店 大丸洋品店 櫃野商店 金鎔觀布木店 東亞金銀商會 美興商店 泉屋號 第一毛絲店 常信百貨店 第一洋品店

미나도帽子店 江一洋品店 安商袖布木店 光金商店 鍾路商會 孫鍾洙布木店 明眼堂 八珍屋 文興商店 金憲培布木店 京城帽子店 寶和堂 大進製帽所 東彰洋靴店 廣盛商會 共同貿易會社 權北應布木店 李一體商店 金淳悅布木店 京信布木店 西信布木店 萬和商店 金化商會 康相勳布木店 潤昌商店 元茂商店 恒豐洋行 李世榮商店 元和商店 尹相鶴布木店 東仁商店 信興商會 李鎬鉉布木店 元仁常布木店 正元商會 車永薰布木店 千祺錫商店 元昌商會 永昌布木店 張慶烈雜貨商 松京布木店 三熙金物店 校洞布木商 金澤商會 李進甫布木店 化泉帽子店 金山堂 昌信商會 元興製帽商會 漢城布木店 洋靴職工作業 三友끄실製造 攸昌商會 金仁基雜貨店 京城商會 權相仁布木店 順昌商會 朝鮮帽子店 朝日帽子店 有信商會 亞細亞年氣商 普信堂時計舖 瑞昌商會 興昌商店 鍾路百貨店 壽昌商店 慶興商店 三興商會 六三商會 金石商會 電話舍 明信商會 五六商會 西大門布木店 京華商會 光澤金物店 同益布木店 同仁布木店 洪慶五布木店 金東洙布木店 李彰夏布木店 韓光玉布木店 九鼎商會 仁王商店 三星堂時計舖 東亞理髮具商 拔信商店 鷄林布木店 東光黑工社 樂園金物商 松葉堂製菓所 福商會布木店 崔斗鎬布木店 正昌布木店 東亞布木店 京華堂時計舖 安明堂布木店 三友布木店 大豐商店 在信商會 棉花商店 昌信布木店 泰豐商會 鍾裕學布木店 榮光商店 德和商會 東昌商店 東亞婦人商會 三和商會 公平商會 朴承稷商店 元昌商店 慶元商店 梁春文商店 金榮商會 大昌商會 錦泰獎商店

關釜連絡船 改造問題進捗

【釜山】關釜連絡船改造問題는 全日本商工會議의 決議에 依하야 當局에 그의 促進을 陳情하엿는데 이의 上程에 잇서 西部聯合商工會議所의 提出한 것과 下關商工會議所의 提出한 것이 意外로 一致하게 되여 當局의 考慮엔 加一層效果的이엿다 傳하는데 今二十六日 아츰 釜山을 通過上京한 朝鮮商工會議聯合會長 賀田氏의 말에 依하면 他線의 就航船이 鐵鋼改善되여 가는 이때에 가장主要論인 關釜連絡船을 그냥 두는 것은 時代에는 진일인 줄을 鐵道省當局者들도 認識하는 모양으로 鐵道省에서 豫算捻出方을 方今硏究中인데 그것만 決定되면 곳 建造에 着手하리라는 確答을 드럿다 한다

對滿水産品의 課稅輕減遲延

滿洲國의 事情으로

朝鮮水産物의 新市場인 滿洲國에 朝鮮으로부터 輸出되는 水産物에 對한 課稅는 輸出稅 從價稅 五割乃至十割外 滿洲國側에서 正稅附加稅百分五를 課하고 更히 附屬地以外의 地에서는 鹽捐稅 百斤에 對하야 五十錢을 課하는 때문에 消費者의 手에 讓渡될 때에는 相當히 高價로 되야 將來의 輸出促進을 阻害하야 甚함으로 此의 輕減運動은 이제 全朝鮮的으로 業者의 間에 意起되야 總督府當局도 무산 對策을 講치 안으면 안 된다하야 中央方面과도 屢屢交涉을 하엿는데 滿洲國側에서는 아즉 租稅制度가 確立되지 못하고 關稅收入은 國家歲入의 重要한 分을 占하고 잇는 狀態임으로 關稅의 低減은 急작히 行키 難한 事情에 잇스며 從하야 水産物의 課稅輕減도 速急히는 될 수 업는 模樣이다

牛移出旺盛

船腹不足으로 增配 朝郵에서 臨時配船

朝郵에서는 城津元山發 敦賀 잇는 揚浩牛移出이 激增되는 것이다 從來同航路에 配船浩牛輸送의 任에 當하여 잇든 北日本이 採算不引合으로 廢航하엿슴으로 朝郵에 依賴하는 者가 續出하야 朝郵에서 一手輸送하는 狀態가 되여 活況을 呈케 되여 一航海에 平均 三百頭의 輸送을 行하고 잇다 이때문에 同社에서는 從來甲板積만에 限하엿든 牛의 積込을 中甲板에도 積込하야 더욱 船腹이 不足되여 新潟航路의 淸津丸을 敦賀에 寄航케 하야 目下 長白山、釜山、淸津丸의 三隻으로 輸送하고 잇다

穀檢管轄大改正

明春元日부터 實施

穀物檢査所의 檢査區域及指定地의 變更에 伴한 穀物檢査所의 支所名稱位置及管轄區域에 關한 府令의 改正은 目下 總督府審議室에서 審議를 進行하고 잇는대 檢査所의 支所區域中 忠南道의 一部 即 群山支所의 管轄區域中의 一部를 仁川支所에 編入하는 外에 支所出張所間의 管轄檢査指定地에 變更을 齎來하야 關係告示改正을 行함으로 字句의 訂正을 行한 後 今月末日까지에 發布하야 九年一月一日부터 實施할터이다

改正關係府令及告示는 左와 如함

▲七年九月三十日府令 第百一號穀物檢査所의 支所名稱位置及管轄區域

▲七年九月三十日 告示第五百十五號穀物檢査所支所出張所의 名稱、位置及支所及出張所의 管轄檢査指定地

▲七年九月二十四日 告示第五百號檢査令 第一條第一項에 規定한 檢査指定地

▲七年九月三十日 告示第五百十六號가마니 檢査規則第一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生産及搬出指定地

在來棉共販 百萬斤突破

平南道狀況

【平壤】平南道에서의 在來棉共同販賣狀況은 九月廿日부터 十月廿一日까지에 다음과 갓다

	共販量	價格
大同郡	三、五六六斤	一九元圓
龍岡郡	[illegible]	[illegible]
江西郡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그리고 現在에는 一等品十二圓三錢八厘에 販賣되며 잇서 十一月末의 共販을 了하기까지에는 百萬斤을 突破하리라고 豫測된다

農家의 玄米調製

經濟向上에 適切

一石調製에 一圓四十九錢利益 京畿道에서 銳意督勵

産米를 玄米로 調製하야 有利한 販路를 講究하는 것은 農家經濟向上을 爲하야 適切한 施設인데 目下正租及玄米價格의 狀態를 보면 例컨대 京畿道平澤附近의 四等玄米每石의 玄米調製는 一圓四十九錢의 利益이 잇슴으로 此好機를 逸치 말고 一般農家에 玄米調製를 奬勵하도록 道産業部長으로부터 各郡守에게 通達한 바 四等玄米 一石調製의 利益狀況은 左와 如함 (平澤農業倉庫 十一月二十三日調査)

▲支出

原料正租(三五五斤)	[illegible]
調製玄米	[illegible]
叺代(一枚、一九)	[illegible]
繩代(一叺、〇四〇)	[illegible]
檢査料	[illegible]

▲收入

玄米代	二〇、三〇〇
落物代	三〇〇
計	二〇、六〇〇

▲差引利益 一、四九〇

江華著名商工紹介 (二)

金浦自動車會社江華支部

金浦自動車會社는 本店을 金浦邑에 두고 江華邑에다 支部를 둔 同社支部는 江華京城間 每日往復三回의 江華京城間乘合自動車線路에 重大使命을 다하고 잇스며 同社江華支部는 數年間 巨大한 損缺의 赤字를 보여 一時悲運에 遇하야 마지안튼 中 江華의 靑年實業家 朴禮秉氏가 支社長에 就任以來 獻身的努力으로써 復活하야 顧客에게 親切叮嚀하다하며 새로운 役車으로 支社長朴禮秉氏의 沈着緻密한 態度는 一般의 信任을 바다 두터운 支持와 援護를 밧고 잇스며 일즉이 江華實業家로 일홈이 놉흔 朴氏의 就任이야말로 適所適材의 人이라 하겟스니 金浦自動車會社支部의 曙光은 再生의 길을 밟고 飛躍的 發展이 된다 한다

金有澤商店

江華에서는 歷史가 길흔 最古의 商店이며 綢緞布木雜貨商店이다 每年貿易額은 거이 이 商店이 獨占한 것이라 하야도 無關하다 商品購入에 注意하는 同時에 原産地에서 直輸入하야 他商店보다 廉價로 薄利多賣에 人氣를 集中하며 一日賣上高 一千二百餘圓에 達한 적이 잇섯고 平均 一日 三百四五十圓 植는 販賣된다 한다 商界에 조흔 現象이 종 同商店은 店主金有澤氏가 自幼時로 刻苦精勵하야 斯業에 從事하야 爾來 二十五個星霜을 經營하는 것이다 資本金 二萬圓으로 南門外의 한쪽에 金有澤商店을 찾지 안는 이가 업다 한다

百貨店獨逸洋行

同百貨店은 元來 朴宜秉氏가 八年前부터 洋襪製造와 染料製造商을 經營하다가 昭和五年에 事業家 洪在仁氏가 百貨店經營이 必要한 줄 늣기여 洪在仁氏가 主體가 되여 三萬圓을 出資하야 下市場通에 店舖를 二階로 新築하고 規模가 커진 百貨店 獨逸洋行이 생긴 것이다 同百貨店은 綢緞布木和洋百貨店으로 經營하는 江華唯一의 데파ー트이니 吾人商界에 한 자랑될 만한 것으로 하로 씀의 賣上은 얼마나 파나 昨年十二月 가튼 때는 最高二千四百圓의 賣上이엿섯고 夏秋期에는 三百五十圓가량으로 一年을 通해보면 平均 一日 五百圓가량이라 한다 洪在仁氏의 三萬圓에 增額한 事 近代化한 서비스를 다하야 吾人一切의 消費를 供給하리라는 바 百貨店事務는 三十四五歲의 靑年實業家로 親切誠實한 朴宜秉氏이며 店員五人으로 接客에 無限親切하며 商品仕入은 名古屋、大阪의 優良品卸市場과 東京等地에서 直輸入하여 온다 한다

其他有力商

以外에도 綢緞布木商에 泰化商店 崔炳喆商店 金謹泰商店 許潤商店 金潤濟商店이 잇서서 覇權을 掌握하야 到底히 눈치빨른 外國人들은 着眼을 못하는 情勢이오 고무靴商에 朴昌恩商店 金生山商店이 獨占場이요 卸業商으로는 林德永商店과 朴豫福商店이 人氣를 잇글고 잇다하며 雜貨商에 天祐商店이 有하며 製藥商에는 車壽鎬製藥店과 金謹泰商店製藥部가 優勢이며 米穀商으로는 安吉龍穀物商이 掌하야 잇고 製麵商에 福錫商店과 魏志鎭製麵所가 有하며 染料製造商에는 獨逸洋行染料工場과 資信洋行、坡成洋行等이 잇고 文房具店으로 百合舍가 獨占이고 自轉車店으로 中央自轉車店과 權益城自轉車店이 第一優秀하다하며 藥房으로는 仁濟堂藥房이 優勢이고 食料品雜貨商으로는 潤榮商會는 日鮮人食料品雜貨商으로 商品을 掌握하여 저들의 着眼을 못하는 情狀일 뿐아니라 巨大한 數字를 가지고 잇다 한다

江華燒器製造組合

本組合은 昭和七年四月에 朝鮮總督府의 許可로 江華燒器製造組合인데 江華郡仙源面神井里에 位置를 두고 揭業하엿다 本組合은 當地陶器硏究家 黃變周氏外 十二人이 總結束하야 組織한 一大産業機關으로 爾來 當務者인 組合長兼理事 黃變周氏의 苦心努力에 依하야 그 業績이 漸次 良好할 뿐아니라 入選된 美術品인 燒酒병 土管 其他數種에 陶器의 品質로 보아서도 日本서 製造한 陶器와 相違가 안 될 으로 京城仁川 其他地方의 酒造會社에서도 相當한 際價를 어더서 날로 需要者가 늘어가는 現狀에 잇다 한다 果然 이것이 江華에 잇서 一個 營利團體로 볼 것이 아니라 販路가 都會地까지 擴張된 關係上 地方的 經濟에 一大도음을 아니 준다고 斷言할 수 업슬 만치 有效한 機關이라고 볼 밧게 업다 하며 國庫補助 二千圓과 道地方費에서 一千圓 補助가 잇스며 技術補助도 有하다 한다

組合長兼理事 黃變周 監事 黃鉉年 黃應周

西鮮電氣社長

渡邊局長固辭

西鮮合同電氣社長은 今井田政務總監의 推薦에 依하야 渡邊農林局長으로 內定、總監의 招電으로 渡邊局長은 一日午後五時 歸城할터이나 渡邊局長自身은 아모리 勸誘하여도 어데까지 固辭를 決意하고 別懇者에 其旨를 洩漏한 모양으로 結局 他에 適任者를 物色할 模樣이다

重役은 누구?

西朝鮮合同電氣幹部重役은 社長에 山本軍藏氏의 呼聲이 잇고 專務에 吉田英三郞氏 常務에 現東拓奉天支店長 米澤喜久松氏가 就任될 것은 거이 決定的으로 米澤氏는 今月末 東拓을 退社하기로 되엿다

朝鮮內荷主割戾 日本荷主에 割讓

朝鮮米冬場 運賃協定成立과 同時에 日朝荷主가 協議한 結果 從來船主로부터 朝鮮內荷主에 給하야 現場에서 返還하든 五分의 리벳中 二分五厘를 今後 日本荷主에 對하야 割讓하기로 決定하엿다

開山屯附近 石炭坑發見

【間通新京電話】開山屯에서 約七里되는 子洞에서 品質優良한 石炭坑이 發見되엿는데 去二十二日 佐藤耕作氏는 四名과 實地調査를 同伴하고 現地에 赴하야 實地調査한 結果 埋藏量이 豐富하고 特히 其品質이 優良하야 直時 試掘에 着手하야 現在二十餘名의 坑夫를 使用하야 採掘하는 中인데 其結果의 良否로 大量採掘되리라고 考究하는 中이다

蘇聯製品 滿洲進出

販路擴張計劃

【商通奉天電話】當地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蘇聯政府에서는 日本實業家와 經濟提携를 圖하야 同國産의 石油揮油及其副産物木材等의 代理販賣權을 日本商에 委托하야 滿洲國內販路擴張을 試할 目的으로 準備하는 中이다

京東鐵道의 鐵道局借款

支拂延期容認

京東鐵道의 四十萬圓의 鐵道局과의 借款은 今日로 滿期에 達하엿슴으로 其期間을 延長키 爲하야 荒木京東鐵道專務가 鐵道局에 對하야 交涉한바 더욱 二個年中의 延長을 許可하엿다

木浦支所管內 米豆檢査標準

查定會를 開催

【商通木浦電話】米穀木浦支所管內의 八年産米標準候補選會는 三十日午後一時五十分부터 左記의 諸氏出席한 後 支所長이 開會의 인사를 베풀고 뒤이어 標準候補品査定으로 넘어가 意見開陳과 會談等이 잇서 盛會를 이루고 總督府監督課長이 檢査에 關한 一場의 이약이가 잇슨 後 散會하엿다 當日出席者는 左와 如하다

總督府穀物檢査所監督課長 吉池四郞
全南農務課長 伊東淀
同 技師 中村佐太郞
同 技師 江上靜馬
農事試驗場長 會田重吉
穀物檢査仁川支所監査官 岡本隆一
農林省群山出張所技手 熊谷三郞
同 中川研一
木浦府尹 野口三郞

其他木浦의 米穀業者 十三名 各地로부터 出席者 二十三名이다

無煙炭業者 大合同論議?

近間京城에서 會議

日本炭界의 異常한 活況에 伴하야 朝鮮無煙炭의 躍進은 實로 顯著하야 江原道三陟保留無煙炭田에 對하야 財界에서 懸唾하는 때도 不拘하고 總督府는 依然白紙主義로 臨하지 안코 同炭田의 拂下問題는 炭界注視의 的이 되여 잇다 마침 朝鮮無煙炭業者를 代表하는 朝鮮無煙炭鑛組合의 七代表(朝鮮無煙炭會社 朝鮮無煙炭鑛會社 東拓興業會社 明治鑛業會社 三菱製鐵 篠井今非)가 近日京城에 參集하게 되엿다 表面會合理由는 昭和九年度出量 格付 炭價協定等을 行하기로 되여 잇스나 同協議에는 總督府도 代表者를 參加식힐 豫定으로 席上炭界表面 問題로 되여 잇는 三陟保留炭田拂下問題를 中心으로 朝鮮無煙炭業者의 大合同議이 總督府斡旋下에 開始되지나 안흘가 注目되여 잇다

米穀檢査嚴重으로 各地의 緩和運動

◇十日頃京城에서

米穀의 檢査嚴重의 結果出廻가 激減하나 消化力이 이에 作치 못하야 各地에서 正租暴落을 現出하고 檢査의 嚴重은 生産의 改良으로 하나 이 가는 方法으로는 農民의 苦痛 當業者의 不便으로 去月末 南朝鮮의 業者는 結束하야 이 改善을 要望運動하게 되엿는데 仁川、京城、鎭南浦等의 西朝鮮의 業者도 此에 相應하야 目下對策考究中이며 十日前後에 京城에 集合하야 運動을 이르키는 同時에 將次 열닐 米豆査定會議에 緊急動議를 提出하야 檢査緩和의 目的達成에 努力하기로 되엿다

慶山耕作組合의 葉煙草收納開始

慶北慶山郡煙草耕作組合에서는 慶山郡內는 反當四十貫收穫豫想으로 慶山에 一五一町五反 淸道郡內는 反當三十貫 淸道에 七十二町步를 一、九一七名의 組合員으로 耕作한 바 그 總收穫豫想高가 四十八萬七千四百七十貫이고 이것의 代價가 約九萬六千六百八十二圓假量이라는대 이 葉煙草의 收納開始가 慶山은 自十一月廿三日至十二月九日 淸道는 自十二月十一日至十二月十九日間이라는바 그 等級價格은 다음과 갓다고 한다

▲三等三、三〇錢 ▲四等二、七〇 ▲五等二、一〇 ▲六等一、六〇 ▲七等一、二〇 ▲八等、八〇 ▲九等、六〇 ▲十等、四〇

小麥과 麥粉에 輸入稅賦課

【電通上海二十八日發】國民政府財政部에서는 外國으로부터 輸入되는 小麥에 課稅하기로 硏究中이엇는데 마츰내 明年一月一日부터 小麥一擔에 對하야 五十錢 麥粉一袋에 對하야 一弗의 輸入稅를 課하기로 決定하엿다

夕刊後의 市況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一五九〇	[illegible]	一五七〇

大阪短期氣配

大新	一三三〇	一〇高
鍾新	[illegible]	六〇低
日産	[illegible]	三〇高
東新	一五九〇	一〇低

橫濱生糸後引

當 [illegible] 先 [illegible]

林巨正傳 (234)

洪碧初 作 安碩柱 畫

리봉학이 一의十一

봉학이가 게슴치레한눈으로부비고 장지통의 하야얀불을바라보다가

「네가 추월이냐」

하고 소리질러 물으니 입을가로벌리고 웃는지 니쿨앙상거리는지 하얀니가 보일뿐이요 대답은업섯다

「왜 대답을 안느냐」

「내가 추월이요 겁나지 안소」

「쥐잇구녁가튼소리 마라」

「내가 사십여년동안 사내다운사람을 못만낫드니 인제잘만낫소」

「잘만낫스니 수청을들테냐」

「나리가튼사내에겐 수청을 어도조치만 우선 이야기할일이잇스니 좀 날어 나안지시요」

「이야기 할일이잇다 지금은 내가 곤해서 자야겟는데 내일밤에 다시오너라」

「자고십거든 자구려 누가말리겟소」

「내가 술이 취햇서두 정신은 말정하다 네가 어제밤에두 왓섯지 무슨소리냐」

「안왓서요」

「그래 어제밤에 나하구가치 자지안햇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면 그만둬라 내가욕이기실타 오늘밤부터 가치 가자」

기집이 봉학이의손을 노코 대번에 뒤에와서 누으며 이불을 끌어달려 얼굴까지 덥헛다

「치마나 벗구 누어라」

「장지나 좀다처시요」

「이년보게 나를 심부름시키지안나」

봉학이가 장지를 다치고와서 기집의머페 누엇다

「옷간에 무어 잇습되엿」

「잇기는 무에잇서 빈방이지」

「기집이 업서요」

「웬기집이 또잇서 기집새래 낫드냐」

「앗가 보섯다며」

초생이 바람에 후려서 희황하게 밝앗다 어두엇다하는 중에 하얀얼굴뒤에 뚝가튼하얀얼골하나가 나왓다 들어갓다하는것을 봉학이가 지긋이 눈감고 바라보다가

「네뒤에는 또 누구냐」

하고 물엇다

「내뒤에요」

「네뒤에 억굴바닥이 하얀년은누구냐말이야 네동무냐」

「아이구머니」

기집이 새된소리를 질르고 아델간으로 뛰어들어오며 누어잇는 봉학이를 덥치눌를듯이 주저안젓다 봉학이는 기집이 처음 웃간에 나타날때보담 도리혀 더놀나서 이불을 박차고 닐어안즈며 기집을 떠다밀엇다 기집이 뒤로 밀려나갓다가 다시 아프로대어들며 두손으로 봉학이의손을 잡는데 그손이 차기가얼음장과가텃다

「귀신의손은 정말 차구나」

봉학이가 손을 뿌리치랴고 하니

「나리 나는 귀신아니요」

기집은 더욱 단단히 달려부텃다

「귀신아니구 무어냐」

「사람이요 계향이요」

「계향이」

하고 봉학이가 기집의얼굴을 드려다보앗다

「올치 알엇다 어제밤에 내가 네무릅을 베구잣구나」

「어제밤에 무어여 앗가 저녁때요」

「앗가본게 너지 누구냐」

「나말고 또보섯다지안헛소」

「그래든가」

「나리를 속일라다 내가 되려 속앗구려」

「나를 속일라구햇다 이년 보아 네일음이 무어시 계향이랫지」

「계향이 일음이 조치요」

「추월이버덤은 낫다」

「차필 왜그일음에다 갓다대요」

「추월이 추월이두 불르기는 조은일음이다」

「그일음 불르지 마시요」

「추월이가 축휘냐」

「축휘는 무슨축휘야 불르면 나오서보아 말이지」

「나오면 걱정이냐 내가 냥여페 하나씩 뉘구자지」

「풍뉴남아(風流男兒)사구려」

「너는 절대가인(絶代佳人)이냐」

하고 봉학이가 입을기집의 볼에 다이라고하니

「아이 술냄새」

하고 기집이 벽을 향하고 돌아누엇다

「술냄새가 실커든 옷간으로 나가거라」

「옷간에는 나가기실은걸」

「내가 옷간으로 나가랴」

「그럼 나도 옷간으로 나갈테야」

「야양고만부리구 이리 돌아누어라」

봉학이가 품안에 계향이를 끌어안고 하룻밤을 지냇다